

四季節의 象을 利用한 體質鑑別法

含笑兒醫學研究所

朴贊國

Matching four season's image to the Sasang constitution(四象體質)

Park Chankuk

Hamsosa medicine research center

In classifying human being into four types: Soeum-in(少陰人), Taeum-in(太陰人), Soyang-in(少陽人), Taeyang-in(太陽人), let, s try to match four season's image to the four type constitution.

1. spring's image(春) soeum-in(少陰人)
 summer's image(夏) taeum-in(太陰人)
 autumn's image(秋) soyang-in(少陽人)
 winter's image(冬) taeyang-in(太陽人).
2. Treating disease, we should also consider essence chi(精氣) state.

key words : image, Sasang, constitution.

I. 序論

우리에게 四象體質醫學이 있어 辨證이 어려운 病이나 難治病의 治療에 있어 專門 醫療人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아직 辨證을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醫療經驗이 적은 사람 심지어 非 專門人들이 醫療를 하는데 대단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體質의 鑑別이 쉽지 않고 專門醫療人 사이에서도 서로 意見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이다.

지금 東醫壽世保元에 나와 있는 體質의 分類法은 喜怒哀樂을 根幹으로 하여 性格을 分析하는 것이다. 그리고 學界에서는 設問紙를 만들어 性格을 조사하여 體質鑑別에 응용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러한 것이 東武先生의 뜻에 따르는 것이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設問紙의 첫째 문제점은 의료인 스스로 체질을 감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露出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設問紙에 답하는 사람이 수시로 그 답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번거롭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 교신저자 : 朴贊國, 함소아의학연구소, 017-242-0337.

근본적인 문제는 東武先生이 제시한 방법만으로 體質을 鑑別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머리 가슴 배 둔부의 돌레를 재서 體質을 鑑別하기도 한다고 들었다. 심지어는 藥을 먹여보고 체질을 감별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다. 최근에는 오링테스트를 하여 체질을 감별하기도 하는 것 같다. 여하튼 모두 번거롭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陰陽思想의 本質에서 조금씩 벗어나 있는 것이 事實이다.

어찌되었든 체질을 좀더 쉽게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四象醫學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인 것 같다.

本人은 지금까지 內經 특히 素問을 공부하였고, 四象醫學에 대하여는 별다른 공부가 없었다. 內經을 공부하다보니 자연 三陰三陽과 四時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였다.

四象이 역시 陰陽의 한 形態이므로 四時나 三陰三陽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三陰三陽과 四時를 四象과 연계시켜 體質을 鑑別하면 방법도 쉽고 좀더 정확하게 감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니 상당한 好感을 가지기에 이렇게 論文으로 작성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II. 本 論

1. 形과 氣

사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지만 形과 氣로 나누는 것이 體質을 論하는데 편리할 것이다. 또한 內經에서 이미 形과 氣를 가지고 體質을 論한 바가 있고 三陰三陽도 결국 形과 氣를 가지고 陰陽의 太少를 論한 것일 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形과 氣를 나누어 體質을 論하여야 보다 정확한 體質鑑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단순히 氣를 버는 物體로만 생각한다면 形이란 氣를 벌기위한 設備과 같은 것이고 氣란 形이 벌어놓은 氣를 指稱하는 것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나 없는나를 따질 때는 현재 돈을 버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와 이미 벌어놓은 돈이 얼마나 되느냐를 같이 생각하여야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체의 體形을 생각할 때도 현재 氣를 벌어들일 設備가 어떠한가와 현재 가지고 있는 氣가 어떠한가를 같이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形과 氣는 상호 간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므로 대개는 形이 氣벌이에 유리하면 氣도 많고 形이 氣벌이에 불리하면 氣가 적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形과 氣를 분리해서 생각하여야 한다.

그러면 形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食物을 가지고 이야기 해보자. 사실 動物은 自然에서 氣를 벌어들이는 機能이 없고 植物이 벌어들인 氣를 약탈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氣벌이를 생각하면 植物을 예로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식물은 많은 잎이 있고 잎에는 많은 엽록소가 있어 炭素同化作用으로 氣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 炭素同化作用을 할 수 있는 葉綠素가 바로 식물의 形의 代表인 것이다. 사람에게서는 비록 葉綠素는 없지만 葉綠素에 해당하는 赤血球가 있어 식물에서 얻어온 氣를 貯藏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組織의 細胞도 물론 氣를 貯藏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역시 형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筋肉이 발달한 사람이나 體毛가 많은 사람은 氣를 저장할 능력이 많이 발달한 것이다.

그러면 氣란 무엇인가? 우리 눈에 '이것이 氣이다'라고 띄는 것은 植物의 열매이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精子和 卵子이다. 그러나 植物의 뿌리와 줄기에 또는 잎에도 많은 영양분이 저축되어 있듯이 사람의 藏間이나 皮下 심지어 血中에도 많은 脂肪이 축적되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氣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筋肉에도 많은 기가 貯藏되고 있다. 그러므로 筋肉이 발달한 사람은 많은 氣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形과 氣는 이렇게 말로는 나누어 설명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 形과 氣를 나누어 말하기는 쉽지 않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形이 실하면 氣가 실하고 形이 虛하면 기가 같이 虛한 경우가 많고, 또한 이것이 氣이고 이것이 形이라고 나누어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굳이 나누어 말을 한다면 形은 視覺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즉 身長이나 몸의 肥瘦 상태, 上中下의 均衡 상태, 皮膚나 體毛의 색깔 등이 아무래도 形을 구별할 수 있는 재료 들일 것이다. 氣는 이에 비하여 音聲이나 脈診 觸診 등이 氣의 虛實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될 것이다.

2. 四象이란 무엇인가?

四象이란 무엇인가를 알려면 먼저 東洋의 數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初等學校에서부터 西洋의 數만을 배우기 때문에 東洋의 數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 西洋의 數는 加減法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數는 단순한 個體의 個數나 量을 헤아리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東洋 특히 周易이나 內經의 數는 數量을 재는 數가 아니라 만물의 변화를 헤아리는 法則의 數이다. 東西洋의 數를 비교하면 1이라는 數가 數量數에서는 제일 작은 單位의 數이지만 法則數에서는 제일 큰 大元의 數이다. 또한 數量數에서는 1에다 1을 더하여 나가면서 數가 만들어 지지만 東洋의 法則數는 1을 2로 나누고 또 3으로 나누고, 4로 나누면서 數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法則數에서는 1이 가장 큰 數인 것이다. 西洋은 이 世界가 작은 原子 같은 것이 모여서 物質을 만들고 또 物質이 모여서 形을 만들어 간다는 입장에서 數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東洋에서는 이미 통일된 하나의 存在가 있고 이 存在가 둘로 넷으로 여덟으로 나누어 가면서 서로 對立하고 調和하는 世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하나로 統一된 世界는 無極이요 太極이며 둘로 나누어 있는 것이 陰陽이고 넷으로 나누어 있는 것이 바로 四象인 것이다. 그러므로 四象 體質醫學이

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의 個體로 볼 때 이 個體를 넷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있다는 것이다. 물론 꼭 넷으로 나누어 볼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우선 사람이 男女로 나누어 있는 것은 일단 사람이 陰陽으로 나누어 있음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인 것이다. 또한 時間을 가지고 생각하여 볼 때 여러가지로 생각하여 볼 수 있지만 一年이라는 것을 하나의 단위로 생각할 때 이 一年을 나누는 방법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우선 12個月로 나누거나 365日로 나누거나 24節氣로, 4季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空間도 물론 예날 중국 사람들처럼 平面에 우물 '井' 字를 그어 9等分할 수도 있고 가운데에 中心을 두고 동심원을 그려 나눌 수도 있고, 가운데 중심에서 각을 잡아 4方이나 8方으로 나눌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편리한 방법을 취하면 되는 것이다. 東武先生이 사람을 관찰하시고 四象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합리적이라고 여기시고 여기에 합당한 理法方藥을 만들어 四象醫學을 成立하셨으니 그 功勞야 말로 千秋에 길이 빛나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우리 後學들은 단순히 이를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3. 四象과 三陰三陽.

四象과 三陰三陽이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여기서 論者가 三陰三陽을 언급하는 것은 內經의 三陰三陽理論을 四象醫學을 연구하는데 도입하고자 하는 뜻에서이다.

혹자는 內經의 三陰三陽과 四象醫學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모든 原理는 비록 용어가 다르고 개인마다 認識하고 있는 用語의 概念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개념에서는 다르지 않다. 특히 본인이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三陰三陽論의 內外概念이다. 곧 太陽寒水 少陰君火 등으로 말하고 있는 三陰三陽은 內와 外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外는 形의 변화를 말하고, 內는 氣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三陰三陽은 一年이라는 단위 시간에 萬物이 生長하는 것을 관찰하여 그 變化過程을 記述한 것이다. 특히 植物이 자라는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고 생각하여 만들어 낸 것 같다. 우리가 언뜻 보면 식물이 그냥 잎과 줄기만 자라고 있는 것 같지만 가을이 되면 어디에서 왔는지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열매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아마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植物의 內面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想定하여 그 內面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藏局을 결정하는 喜怒哀樂이 바로 이러한 내면의 氣의 變化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筆者가 보기에는 너무 抽象的인 내용이라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좀더 알기 쉽게 既存의 用語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다. 怒나 喜는 氣가 陽化되는 것을 촉진하고 哀와 樂은 氣가 陰化되는 것을 촉진한다. 이것 역시 六氣로 설명이 얼마든지 가능한 말들이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三陰三陽의 內部 氣의 變化를 말하고 있는 風火濕相火燥寒도 역시 三陰三陽과 함께 陰陽變化를 하고 있다. 즉 三陰三陽이 形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六氣는 氣의 變化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植物을 가지고 말한다면 三陰三陽은 잎의 變化를 가지고 말한 것이라면 六氣는 씨의 變化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厥陰을 가지고 말한다면 속에서 씨가 發芽를 시작하는 것은 風氣의 힘에 의한 것이고 겉에 싹이 자라는 것은 바로 厥陰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少陰은 內에 君火가 있는데 이 君火는 風에 의하여 점화된 불이 타는 것이고 겉의 少陰은 厥陰의 作用으로 나온 싹이 힘차게 자라는 것이다. 太陰의 속이 되는 濕土는 火에 의하여 熱이 오른 氣가 濕을 머금어 타는 速度를 調節하고 陰을 備蓄하여 氣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陽에서 陰으로 轉換되고 있는 段階이다. 太陰은 少陰에서 길이만 자란 잎이 넓

어지고 두꺼워져서 뜨거운 태양 빛을 얼마든지 받아서 氣를 備蓄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四象醫學에서 三段階의 三陰을 厥陰을 빼고 少陰과 太陰의 두 段階로 한 것은 한 個體 內에서 일어나는 陰陽의 변화는 세 段階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한 個體가 厥陰이라는 특성만을 가지고 現實世界에 生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三陽의 段階에서 少陽의 內가 되는 相火는 太陰에서 벌어들인 氣를 다시 불을 붙여 태우는 것이다. 그리하여 陽明 太陽의 段階를 거쳐 精氣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다. 少陽은 안에서도 타고 밖에서도 역시 타다. 안에서는 氣가 타고 밖에서는 形이 타고 있는 것이다. 안팎이 모두 타고 있기 때문에 少陽의 다음에 위치하는 陽明이 氣血이 모두 실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陽明에 와서는 겉은 여전히 타고 있지만 사그러들어 가는 불에 불과하고, 속에서는 열심히 氣를 거두어들이고 있는데 이것이 主된 任務인 것이다. 陽明에서 거두어들인 氣는 太陽寒水의 段階에 들어오면 단단히 密封을 하여 절대 汗부로 氣가 발산되지 않도록 갈무리 하는 것이 그 주요 임무이다. 사실 太陽이라면 겨울에 해당하는데 나무의 잎은 아무런 작용이 없는 것 같지만 겨울에 나뭇잎은 뿌리를 덮어주고 잎이 떨어진 나뭇가지는 매서운 찬바람에 가지고 있는 氣를 완전히 빼앗기는 시련을 당하는 것이다. 타는 것이 바로 가지고 있는 氣를 빼앗기는 것이라면 매서운 추위에 떨고 있는 가지도 역시 타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 아니겠는가? 三陽에서도 少陽의 형태로 생존할 수 있는 個體가 없으므로 少陽을 除外하고 陽明을 少陽으로 代替하여 少陽과 太陽의 두 段階로 나눈다면 사상의 型式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단지 하나의 個體를 4개로 나누어 놓았다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단지 三陰三陽理論을 도입하여 사용하려다보니 이러한 설명이 필요한 것일 뿐이다.

4. 四季節과 四象 體質鑑別

앞의 序論에서 말하였듯이 현재 四象醫學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확하고 간편한 體質鑑別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확실한 방법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다. 대부분의 풀은 一年을 一生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고 木本 植物도 역시 一年을 가장 중요한 週期로 하여 살아가고 있다. 또한 地球 上的 대부분의 氣는 바로 이 一年을 週期로 하여 살아가는 植物의 同化作用에 의하여 얻어지고 있는 것이다. 四象의 太少 陰陽도 결국은 개체의 氣의 多少와 形의 盛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인데, 이 氣의 多少와 形의 盛衰는 四季節의 植物의 變化처럼 克明하게 들어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本人은 四季節의 植物의 變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본받아 체질을 감별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봄에 싹이 나고 나서 줄기가 자라는 모습에서 少陰人 象을 볼 수 있고 여름에 茂盛하게 자라는 草木에서 太陰人의 象을 찾을 수 있고 가을에 잎에 丹楓이 들면서 열매가 커져가는 草木에서 少陽人의 氣象을 느낄 수 있고 겨울에 씨를 속에 감추고 매서운 바람이 오하려 시원한 듯이 건디고 있는 나무에서 太陽人의 氣象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봄에는 초목이 굵어지거나 단단해지기 보다는 우선 길이가 길어진다. 그리고 잎이 나기는 하지만 아직 그 크기가 작고 연하다.

그러므로 少陰人은 키는 클 수 있지만 마르고 수척하기 쉬우며 體毛가 나기는 하지만 솜털이 많고 머리털은 검고 가늘며 힘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살은 氣血이 모두 적으므로 보드랍기는 하나 무르고 연약하다. 內的으로 氣를 본다면 아직 陽氣의 발생이 旺盛하질 못한데 外의 形에서 벌어들이는 氣도 아직 모자라므로 항상 氣血의 不足을 느끼기가 쉽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內的 風氣가 實해지고 外의 形도 實해지면 이러한 氣血의 不足現像이 해결되어 少陽人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氣의 상태를 살펴보면 우선

脈診에서 少陰人은 柔弱한 脈이 많고 音聲도 소리가 작고 낮은 것이 원칙적일 것이다. 觸診에서는 우선 피부가 부드럽고 차가우며 탄력이 적어 야한다.

太陰人은 養生을 잘한 사람이라면 內的 陽氣의 발생도 旺盛하고 外의 形도 實하게 발달하여 있으므로 기혈이 모두 實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진정한 太陰人이라면 아직 血이 氣보다 더 實한 사람이어야 한다. 內部的 陽氣도 盛하고 外의 血도 實하므로 항상 땀이 많고 살이 잘 찌고 몸에 體毛도 많고 무성하며 색은 짙은 검은색이다. 물론 體形은 큰 사람이 많고 팔다리도 길고 크며, 손가락도 길고 크다. 물론 체형도 작고 살이 찌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자세히 보면 茂盛한 象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氣의 상태를 살펴보면 우선 脈에서 脈이 크고 활발하면서 弦하지는 않아야 한다. 臨床에서 보면 左關脈이 緊하고 右寸脈이 虛한 경우가 많다. 音聲은 雄壯할 수는 있겠지만 낮은 것이 특징일 것이다. 皮膚는 차갑지는 않지만 촉촉하고 뜨겁지도 않아야 할 것이다. 피부는 茂盛하므로 體毛가 많고 少陰인 보다는 탄력이 있을 것이다.

少陽人은 가을의 草木처럼 안에 氣는 많으나 이미 形이 衰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젊은 시절에는 血 不足 현상을 심하게 느끼지 않지만, 40이 넘어가면 血과 陰의 不足을 일으키기 쉽다.

少陽人의 體形은 가을의 草木처럼 단단하기는 하나 茂盛하지는 못하다. 體毛도 뿔뿔하고 강하기는 하나 太陰人처럼 굵지 못하다. 그리고 머리털의 색은 노랗거나 붉은 빛이 돈다. 少陽人은 血이 적고 氣가 많기 때문에 몸이 가볍고 단단한 體型이다. 살은 陰人에 비하여 단단하며 윤기가 난다. 그리고 少陰人이나 太陰人에 비하여 손발이 작고 손가락도 짧은 경향이 많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少陽人 어딘지 모르게 形이 윤택하긴 하나 건조한 듯하고 기가 충실하여 단단해 보여야한다. 少陽人의 脈은 弦한 脈이 많다. 특히 友關脈이 弦緊하고 左關脈이 弦細한 경우가 많다. 音聲은 音이 淸하고 높은 경우가 많

다. 少陽形人테도 音聲이 높지 않으면 水氣가 實한 사람이므로 예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體形도 그 本形의 脈이 나오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이다. 즉 少陰人 形의 사람이 脈이 實하다면 이 사람은 氣가 實한 사람이므로 少陰人에 국한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太陽人은 紅顏白髮을 항상 太陽人이라고 생각하였다. 비록 형체는 늙었으나 內에 陽氣를 잘 收斂하고 있는 道士가 바로 太陽人의 象이라고 생각한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先天의 氣를 잘 타고난 壯士들이 바로 太陽人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모든 氣가 骨로 들어가는데 太陽人이야말로 骨氣가 가장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東武先生이 太陽人은 병에 걸리지 않고 걸리면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까닭은 그 氣運이 모두 骨 속에 있기 때문이다. 太陽人은 겉은 氣가 虛하여 보이지만 속에 많은 氣를 감추고 있으므로 脈은 아주 實하게 나와야 한다. 목소리는 氣가 많지만 水氣도 많으므로 단단한 低음이 나올 것이다. 皮膚는 거칠게 보이지만 만져 보면 오히려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체형은 그리 크지 않고 體毛도 많지 않아야 한다. 皮膚色은 陽人이므로 少陽人처럼 밝아야 한다.

Ⅲ. 結 語

이 글을 써 놓고 보니 벌써 여기저기서 曰可曰否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東武先生이 해놓은 것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본인도 마음에 부담을 많이 느낀다. 단지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東武先生이 말한 體質鑑別法이 틀렸다 맞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좀도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해보는 것이다. 만약 본인의 말이 가치가 없다면 不遠間에 사라질 것이고 만약 의미가 있다면 다행히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이 주제넘게 皮膚 脈象 體毛

音聲 등을 가지고 體質을 論한 것은 단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치부해 버리고, 원래 하고자 하는 말은 四季節의 象을 가지고 體質을 鑑別해보자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1. 봄의 象을 가지고 少陰人을 찾아내고, 여름의 賞을 가지고 太陰人을 찾아내고 가을의 象으로 少陽人을 찾고 겨울의 象으로 太陽人을 찾자.
2. 사람에게는 形과 氣가 있는데 치료에 있어서는 단지 形만을 생각하지 말고, 氣를 같이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形의 體質이라도 氣가 다르면 治法을 달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參考文獻

1. 朴贊國：傷寒論 三陰三陽에 관한 연구. 대한원전 의사회지 vol.7. 서울. 대한원전의사학회. 1993.
2. 尹暢烈：三陰三陽에 관한 연구. 의철학. 대전.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2002.
3. 朴贊國：三陰三陽과 氣의 변화. 대한원전 의사회지 vol.9. 서울. 대한원전 의사회. 1995..
4. 朴贊國：三陰三陽經脈의 發生과 機能. 대한원전 의사회지 vol.12. 서울. 대한원전 의사회. 1999.
5. 朴贊國：六爻와 三陰三陽, 五運六氣. 대한원전 의사회지 vol.13. 서울. 대한원전 의사회. 2000.